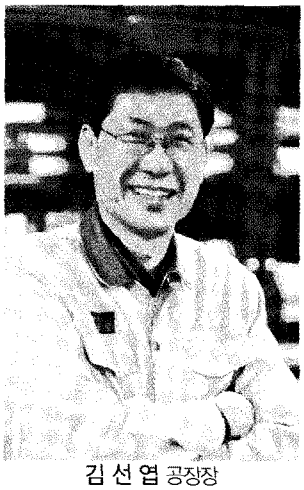
현장 밀착 관리에서 무재해의 길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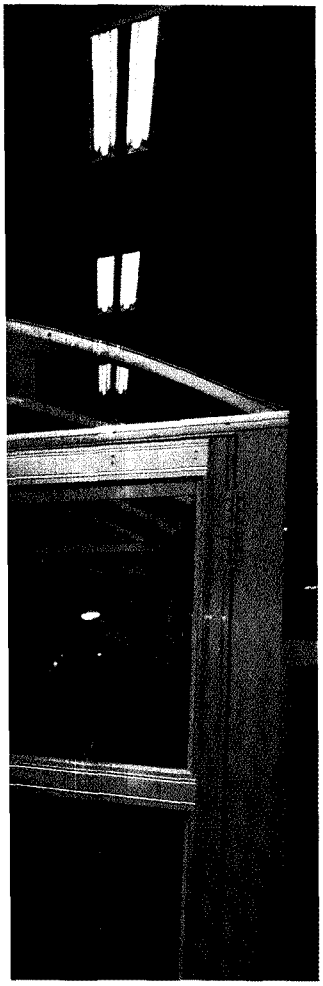
취재 | 최종덕 기자



김 선 엽 공장장

경영주는 현장을 알아야 안전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기계와 도구 그리고 사람이 어울어지면서 하나의 완성품이 생산되기까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곧 재해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 모두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밀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1년 52주동안 테마를 설정하여 현장 점검을 하는 테마패트롤이 대표적으로 현장을 밀착관리하는 우리 한국팩키지의 안전활동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테마패트롤 점검시 특히 5S를 중점적으로 살피는데 현재 무재해 2배수를 달성한 것도 이러한 것이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경입니다. 환경은 5S가 정착되지 않으면 주변이 산만해지고 이는 곧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은 5S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당초 5S는 품질과 생산에 기초를 둔 활동입니다. 그러나 안전이 품질과 생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점에서 볼 때 5S의 정리정돈 만큼 안전의 기본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 한국팩키지에서 주요 안전활동으로 5S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지만 무재해는 지속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면서 혼선을 빚기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을 더욱 완성시켜 우리만의 안전기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끝으로 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을 잘 지키는 것은 본인 자신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볼때 년간 34조원을 절약하는 애국이기도 합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서 금년 2010년도에는 무재해 사업장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1979년 국내 최초로 카톤팩(우유팩)을 생산하면서 유음료 포장용기의 개혁을 가져온 한국팩키지! 1985년에 와서는 결국 국내 우유팩 수요 전량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우유팩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반월공업단지내에 있는 한국팩키지는 스탠다드 수준의 위생환경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선진국형 공장으로 우리나라 액체포장용기 산업을 이끌어왔다. 이러한 바탕은 국내 우유팩업계 최초로 ISO9001인증, HACCP 인증(ISO22000 통합 전환)과 더불어 지난해 무재해 2배수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지난해까지 5년째 1,000만불 수출탑을 세우고 있는 한국팩키지, 올해는 OHSAS18001 인증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직원들이 편안히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내부 조직 다지는 데에도 팔을 걷고 나선다.

현장에서 안전의 해답을 찾아

카톤팩의 원재료는 종이다. 특수 제작된 원지는 롤로 입고되는데 입고된 롤은 피 코팅을 거쳐 제품별 인쇄공정이 이어진다. 이는 곧 규격대로 성형을 거치고 열에 의한 측면접착이 완료되면 출하된다.

공정은 회전체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회전체가 많다는 것은 협착과 말려들어갈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칫 안전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라도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증이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김선엽 공장장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장 밀착관리가 무재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한국팩키지의 안전 활동들은 현장에서 시작되고 현장에서 마무리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테마패트롤 !

1년 365일 중 52주에 대해 집중 관리 테마를 선정하고 김선엽 공장장을 비롯해 노조위원장, 노조 산업안전부장 등 주요 간부급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매주 현장 개선을 위한 점검이 이뤄진다.

지금은 테마패트롤 때문에 현장에는 더 이상 지적될 사항이 없다. 한동안 테마패트롤은 현장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현장 직원들의 의견 소통수단으로도 사용되었으나 이 또한 현장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개선되다보니 이마저도 이야기 거리가 별로 없다.

이렇듯 하나의 활동이라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한 한국팩키지의 테마패트롤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2010년 활동을 시작한다.

기계적 위험요인 원천봉쇄

현장의 기계기구는 회전체가 많다. 인쇄공정, 성형공정 그리고 포장공정 등 어디하나 회전체가 없는 곳이 없다. 회전체를 방치하면 금방이라도 작업자의 손가락이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한국팩키지 현장!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뒤로하고 오늘도 무재해는 이어지고 있다. 위험한 공정이 있음에도 사소한 사고하나 없는 한국팩키지의 비결은 바로 위험기계기구로부터 작업자를 원천봉쇄시키는 것.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모든 공정기계는 투명아크릴로 덮어져 있다. 수리나 청소를 위해 문이라도 열기라고 하면 모든 기계는 가동을 멈춘다. 고의적으로 작업자가 조작을 하지 않으면 가동되고 있는 기계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위험기계기구와의 격리, 이것이 한국패키지가 무재해를 달성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다.

2009년 무재해 2010년에도 지속

비전에서 2013년까지 2000억불 수출 달성을 비롯해 외형적으로 성장할 한국팩키지는 이와 더불어 안전도 키워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변화는 산업재해의 새로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잘 수행해온 2009년도 안전활동을 더욱 정착시켜 한국팩키지만의 안전기법으로 2010년을 보낸다.

또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고대병원과 같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육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의 컨디션 체크를 위한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창조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다.

특히 한국팩키지가 자랑하는 국소배기장치와 공기조화시설은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냄새관리를 위해 그동안 투자한 시설로 2010년도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한국팩키지를 위해 지속관리 될 것이다.

이렇듯 현장에서 무재해 한국팩키지의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무재해를 이끄는 이곳 사람들은 또 다시 2010년 새해에도 무재해가 지속될 것이다.